

코로나19 '고용 한파' 3040에 더 매서웠다

상반기 3040 광주·전남 실업자 2만2000명 ... 1년 새 7000명↑
지역 94만6000명 취업 의사 없어
15~29세 실업자는 1만7000명↓

■ 상반기 취업 미희망자 추이 (단위:명)



올 상반기 광주·전남에서 취업 의사가 없었던 지역민 숫자가 1년 전보다 4000명 많아진 94만 6000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대란 속에서 지역 비경제활동인구가 4년 만에 가장 많은 104만 6000명이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1~6월) 자신의 상태를 '취업희망 안했음'으로 표시한 지역민들은 광주 44만 5000명·전남 50만 1000명 등 94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4000명 늘었다. '취업희망 안했음'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취업을 희망하지도 않았다는 의미다.

최근 3년 동안 상반기 기준 지역 '취업희망 안했음' 숫자는 ▲2018년 광주 43만 4000명·전남 50만 5000명 등 93만 9000명 ▲2019년 광주 44만 4000명·전남 49만 8000명 등 94만 2000명 ▲올해 94만 6000명 등 증가 추세다.

올해 광주·전남에서 취업을 희망하지 않은 사람을 성별로 나누면 여성 60만 6000명·남성 34만 명으로, 여성이 전체의 64.1%를 차지했다. 남성은 1년 전보다 광주에서는 6000명이나 늘고 전남에서는 2000명 증가했다. 여성은 광주에서는 4000명 줄었지만 전남에서 1000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년 전보다 2만 5000명이나 늘어난 104만 6000명(광주 50만 4000명·전남 54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상반기(105만 1000명) 이후 4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 대상 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남성(광주 1만 5000명·전남 6000명)과 여성(광주 4000명) 모두 골고루 증가했다. 미혼 비경제활동인구는 1년 전보다 7000명 증가한 35만 명(광주 18만 6000명·전남 16만 4000명)이었고, 기혼자는 무려 1만 7000명 늘어난 69만 5000명(광주 31만 7000명·전남 37만 8000명)을 기록했다. 기혼 비경제활동인구는 전체의 66.5%를 차지했다.

코로나19 고용한파는 30~40대에 유달리 매서웠다. 올 상반기 30~49세 지역 실업자는 광주·전남 각각 1만 1000명씩 총 2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7000명 증가했다. 15~29세 실업자가 1만 7000명 감소하고, 50세 이상 실업자가 1000명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에는 10~20대 실업자 수가 가장 많았지만, 올해는 30~40대 실업자가 이를 역전했다.

통계청은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전국 만 15세 이상 가구원 23만 4000가구를 표본조사했다. /박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 체이스센터에서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확신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고 있다. 그는 연설에서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에 도달하는 데 충분할 정도로 여러 주(州)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국 대선 바이든 승리 눈 앞... 트럼프 소송전

당선 확정까지 시간 걸릴 듯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11·3 대선의 승부처인 주요 경합주에서 승리하며 선거인단 확보 경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한층 더 유리한 위치에 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를 문제 삼으며 일부 핵심 경합주의 재검표와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해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관련기사 2면>

바이든 후보는 4일(현지시간)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과반인 270명에 6명 모자라는 264명을 확보했다고 AP통신과 AFP통신이 보도했다. 선거인단 확보 면에서 대권 고지의 9부 능선을 넘은 형국이다.

바이든 후보는 네바다와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 남아있는 4개 경합 지역 중에서 6명의 선거인단만 추가로 확보하면 대선 승자가 될 수 있다. 특히 막바지 개표 국면에 바이든 후보 지지층이 많이 참여한 우편투표 개표가 활발

히 이뤄지면서 바이든 후보가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CNN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이 4곳 중 네바다에서 86% 개표 현재 49.3%의 득표율로 48.7%인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 네바다에 걸린 선거인단이 6명이어서 270명까지 남은 선거인단과 일치한다. 바이든 후보는 최대 승부처로 꼽히던 펜실베이니아에서 막판 맹렬한 추격세를 보여 여권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곳을 이기면 대직남 270명을 넘어서게 될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 7일부터 거리 두기 1단계 적용 '맞춤 방역'

광주시가 정부의 5단계로 세분화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7일부터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를 적용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5일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서민 생활 규제를 완화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감염 차단을 위한 맞춤형 정밀방역 체계는 강화한다"고 말했다. 실내의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지만 500명 이상일 때는 자체적으로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그동안 유흥주점 등 정부 지정 고위험 시설 11종에만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으나 앞으로는 중점 관리 9종, 일반 관리 14종 등 23종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 소독 등 3가지 방역 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중점 관리 시설에는 이용 인원 제한 등 수칙이 추가된다. 공공시설 입장은 기존 수용인원의 50%까지만 허용되던 것이 100%로 확대된다. 다만 스크린 경마장은 50%, 스포츠 경기는 기존 30%에서 50%로 제한된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하지만, 사회복지시설 내 식사는 금지된다. 노인 요양 시설에서도 비접촉 방식의 제한적 면회만 가능하다.

전국적인 지침에 맞춰 13일부터는 실내, 밀집된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화두는 국민통합... 호남민심 결집 기대"

2022 대선 잠룡에 듣는다

<1> 이낙연 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사진)가 '국민통합'을 화두로 차기 대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3면>

이낙연 대표는 5일 국회 본관 민주당 대표실에서 광주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점차 고착되고 있는 좌우 극단의 사회적 갈등과 관련, "극단적 보수 진영이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적폐정권 과정에서 피해 의식이 증폭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진 측면에 크다"며 "어느 시점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 통합에 나서야 한다. 그것을 위한 물 밑 모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도·합리적 성향인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내년 3월을 목표로 하는 대선용 싱크탱크 출범과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이 대표는 최근의 지지율 하락 및 정세와 관련, "지금부터 긴 레이스에 들어가는 것이기에 앞으로는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라며 "그동안의 독주 체제가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었으며 시간이 갈수록 인물들의 진가가 드러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또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지 않았다"며 추후 호남 민심이 적극적 지지를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한국형 뉴딜과 관련, 이 대표는 "광주가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뉴딜을, 전남이 해상 풍력으로 그



린 뉴딜을 선점한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으며, 광주와 전남의 행정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광역발전전략을 함께 세운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으며 지원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시절, 대구·경북 군 공항 이전 문제로 국방부가 적극 나서면서 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며 "국방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형 뉴딜과 관련한 광주역과 무안공항, 여수·광양항 등 지역 SOC 확충에 대해서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등 지역에서 보다 구체적인 제안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첨단 비즈니스 지식산업센터

IT, 벤처, 스타트업, 1인 기업 등 기업사옥으로 지식산업센터 인기!

허드슨 1041 **첨단2지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첨단 지식산업 플랫폼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혁신 비즈니스 시대를 열다

분양금액의 최대 80%까지 장기저리융자 가능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등 세제혜택

최대 70억 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청년창업, 스타트업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입주예정

KAIT 한국자산신탁 삼일건설 삼일루체아

모델하우스 오픈중

T.372-6666

모델하우스 : 광주 서구 마죽동 165-14

[사업개요]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1041번지 ※ 규모: 지하3층~지상15층 ※ 대지면적: 6,618.00㎡ ※ 용도: 지식산업센터(공정) 및 근린생활시설 기타지원시설 ※ 건축면적: 3,498.68㎡ ※ 연면적: 37,879.33㎡

[지식산업센터 184실 | 근린생활시설 77실 | 지산·상고 21실 | 운동 및 문화시설 3개소]

※ 본 홍보물의 내용은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홍보물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일러스트, CG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사업주체, 국가(지), 지자체 및 기타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참조한 것으로 관련 기관의 사업주체 승인 등 일부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세공(연) 등 청정(연)은 사업주체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허가 등에 미치지 못하여 상인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소외자의 용어는 관련법규를 참조하십시오. ※ 계획(연)은 100% 미비되는 해당(연)으로 추후 사업 진행에 따라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